

##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이은정<sup>1\*</sup>, 황경수<sup>1,2</sup>, 고태호<sup>3</sup>

<sup>1</sup>제주대학교 행정학과

<sup>2</sup>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sup>3</sup>제주발전연구원

## Economic and Social Impact Analysis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Eun-Jeong Lee<sup>1\*</sup>, Kyung-Soo Hwang<sup>1,2</sup> and Tae-Ho Ko<sup>3</sup>

<sup>1</sup>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2</sup>Social Science Institute, Jeju Nat'l Univ.

<sup>3</sup>Jeju Development Institute

요 약 본 연구는 2008년에 개최된 제주국제관악제에 따른 관광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제주지역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주지역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사회통합적 측면, 정치·선전적 측면, 문화발전적 측면, 산업적 측면 4부분으로 나누어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ipple effects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on Jeju regional economy and to explain the influence of the festival on Jeju regional society and culture.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tourism industry with the Jeju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To explain the influence on Jeju regional society and culture, this study examined society-integrating part, policy-advertising part, culture-developing part, and industry-developing part.

**Key Words** :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Tourism industry, Economic ripple effect, Societal and cultural influence

### 1. 서론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방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축제 등의 이벤트를 개발·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 축제를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장소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방효과가 큰 산업, 즉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 축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지역 축제가 1990년대 넘어가면서 5년 간격으로 거의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마다 무분별하게 개최되는 축제로 인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형태로 개최되어 지역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고, 개최시기가 편중되어 있으며 축제의 문화적 특성이 변용되고 있다, 그리고 관료들의 간섭, 경험부족 등으로 운영면과 예산낭비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축제와 관련한 투입예산의 적정성 및 경제·사회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 축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실성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한주이충기, 2007).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사회·문화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틀

\*교신저자 : 이은정(ejlee@jejunu.ac.kr)

접수일 09년 10월 06일

수정일 09년 11월 02일

게재확정일 09년 11월 12일

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축제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나는 추진주체의 축제 예산지출을 통한 직접지출 경로, 다른 하나는 축제에 참가한 방문객들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통해 유발되는 지출 경로이다. 이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 IO)이 있다. 산업연관모형은 산업간 외부수요와 산업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대희(2001)의 지역문화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정홍익 외(2008)의 문화관광상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합하여 사회통합적 측면, 문화 발전적 측면, 정치선전적 측면, 산업적 측면 네 부분을 기준으로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 지역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사회·문화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는 제주의 대표적 예술축제의 하나로 손꼽히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선정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에 시작한 이래 짝수해는 전문양상블 축제 및 국제관악콩쿠르로, 홀수해는 밴드축제로 성격을 달리하여 개최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 참가단체의 유명도 및 음악수준이 국제 상위클래스인 점, 연주프로그램 등이 국제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관악’, ‘문화’ 하나로 특화된 축제로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주는 파급효과는 놀랄 만큼 크다고 한다(고영기, 2004).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축제나 회의 유치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관악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전국산업연관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국제관악제의 개최로 관광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산업 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사회통합적 측면, 문화발전적 측면, 정치선전적 측면, 산업적 측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2.1 관광산업 분류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은 “관광산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

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산업에 대해 법적 규정은 있지만, 통계청,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광산업을 단일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명확히 분류할 필요가 있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김한주이충기(2007)는 한국은행 “2000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크게 숙박업, 음식점업, 쇼핑업, 관광교통업, 문화오락서비스, 영상오락서비스로 분류하고, 각각 숙박업, 음식점업, 소매업, 기타운수관련서비스, 철도여객, 도로여객, 항공여객, 문화서비스, 운동경기관련서비스, 기타오락서비스, 영화연극예술 등 총 27개 부문을 통합하였다.

이상경·양승우(2006) 역시 한국은행 “2000 산업연관표” 404 기본부문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을 정의하여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관광교통업, 문화오락서비스 5개로 분류하고, 각각 소매, 음식점, 숙박, 도로여객운송, 연안운송, 기타운송관련서비스, 문화서비스, 영화,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기타오락서비스를 통합하였다.

이충기·서태양·박종구(2008)는 한국은행 “경북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관광교통업, 문화오락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하였고, 이지석·윤정희(2008)는 숙박업, 음식점업, 쇼핑업, 관광교통업, 문화오락서비스, 영상오락서비스 총 6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관광교통업에 기타운수관련서비스, 철도여객, 도로여객, 항공여객 등을 통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숙박업, 음식점업, 소매업, 관광교통업, 문화오락서비스 5부문을 분류하여 제주지역산업연관표 28부문을 이용하여 각각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 및 보관, 도소매업, 사회및기타서비스로 대응시켰다.

### 2.2 지역산업 연관분석 선행연구 검토

지역산업 연관모형은 Isard(1951)를 중심으로 투입산출모형을 지역경제 분석에 광범위하게 적용, 발전시킨 것으로 투입산출모형은 산업 제품에 대한 외부수요와 산업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김홍배, 2007).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은행 전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지역 산업구조 분석을 하고 있고, 축제 또는 메가 이벤트, 스포츠행사 등의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할 때 직접조사방법이

나 간접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주로 간접조사방법을 이용하고 있다(이영옥, 2003).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입지상계수법, 공급수요균형법, 양비례조정법, 가중치접근법 등이 있는데 그 중 입지상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은 국가경제에 대한 지역경제의 상대적 비중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산업에 대한 지역산업의 상대적 중요도와 전국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이영옥, 2003).

주요 선행연구의 연구방법 및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표 1과 같고, 주로 입지상계수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축제 및 문화행사 관련 산업연관분석모형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방법
이충기 (1999)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외래 관광객 및 관광수입 예측,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
이희재 (2000)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지역에 미친 경제적 효과 분석	지역산업연관분석
이희찬 (2001)	2000 광주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분석 방법	설문조사, 가중치 개발
고숙희 (2001)	1999년에 단양에서 개최된 10개의 지역문화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방문객의 지출경비와 지역투입 지역산출 기법에 의한 산업연관분석
김상호 (2004)	2000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분석	지역투입산출모형 입지상계수법
김상호 (2004)	2004 함평나미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지역투입산출모형 입지상계수법
공상애·최근희 (2005)	이천 도자기축제의 정부직접투자 및 지출로 인한 경제효과, 관광객 지출의 경제적 효과 추정	지역투입산출모형
조우정 (2006)	스포츠이벤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라 2006년 전남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 개최의 파급효과 분석	설문조사 기존 스포츠이벤트 관련사업의 (전국평균값) 승수 활용
이상경·양승우 (2006)	완도 해신 촬영장 방문객들 설문조사를 통한 경제파급효과 분석	설문조사(실제관광 지출액 추정) 지역산업연관모형
유명희 (2006)	2003 고양세계꽃박람회와 2000 박람회 운영의 차별화, 성과 차이 분석	경영성과 분석, 산업연관효과 분석
최성관 (200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설문조사 지역산업연관분석
김한주·이충기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역산업연관분석, 입지상계수법

(2007)	파급효과 분석,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작성 방법과 자료수집 및 추계, 입지상계수를 활용	설문조사,
이충기·이진형·송학준 (2007)	2005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지역산업연관분석 입지상계수법 설문조사
이지석·윤정희 (2008)	2007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지역산업연관모형 입지상계수법
이충기·서태양·박종구 (200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파급효과 평가	지역산업연관표, 개방형·폐쇄형 산업연관모형 활용

### 3. 분석모형 설정

#### 3.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

한국은행과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으로 2008년에 발표한 제주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다음 표 2처럼 각각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 및 보관, 도소매업, 사회및기타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다.

[표 2] 제주지역산업연관표상 관광사업 분류

통합부문	제주지역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숙박업	음식점및숙박업
음식점업	음식점및숙박업
소매업	도소매업
관광교통업	운수및보관
문화오락서비스	사회및기타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산업연관표 활용

“제주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별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직·간접적으로 지역내 및 타지역에 파급되는 생산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표 3의 생산유발계수는 제주 지역내 파급되는 생산효과를 나타낸다. 산업별로 보면 교육및보건서비스(1.956)가 가장 높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633), 인쇄,출판 및 복제업(1.567), 목재및종이제품 제조업(1.551), 정밀기기 제조업(1.4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직·간접적으로 지역내 및 타지역에 파급되는 부가가치단

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표 3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제주 지역내 파급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나타낸다.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0.869), 전기및전자기기 제조업(0.866), 기타(0.85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0.841), 사회및기타서비스업(0.8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지역내 및 타지역에 파급되는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표 3의 고용유발계수는 제주 지역내 파급되는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낸다. 산업별로 보면 일반기계 제조업(20.875명)이 가장 높고, 농림수산물(19.460), 석유및석탄제품 제조업(18.107명), 수송장비(16.791), 제1차금속제품 제조업(16.494) 순이었다.

[표 3] 제주지역 산업별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계수

구분	투입계수	순위	생산유발계수	순위	부가가치유발계수	순위	고용유발계수	순위	
산업별 계수 (28부문 연표 이용)	농림수산물	0.214	24	1.241	26	0.825	6	19.460	2
	광산품	0.158	27	1.405	10	0.276	28	10.100	13
	음식료품	0.472	2	1.221	27	0.772	8	4.900	25
	섬유및가죽제품	0.272	14	1.409	9	0.616	15	5.864	24
	목재및종이제품	0.299	9	1.551	4	0.508	21	14.167	7
	인쇄,출판및복제	0.302	7	1.567	3	0.642	11	11.652	12
	석유및석탄제품	0.403	4	1.385	12	0.434	26	18.107	3
	화학제품	0.336	5	1.418	8	0.488	22	6.009	22
	비금속광물제품	0.411	3	1.633	2	0.841	4	12.721	10
	제1차금속제품	0.242	21	1.377	15	0.519	20	16.494	5
	금속제품	0.220	23	1.310	22	0.801	7	4.598	26
	일반기계	0.260	18	1.378	13	0.525	19	20.875	1
	전기및전자기기	0.283	11	1.309	23	0.866	2	7.489	18
	정밀기기	0.301	8	1.468	5	0.484	23	12.007	11
	수송장비	0.242	20	1.445	6	0.629	14	16.791	4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269	15	1.341	21	0.636	13	7.623	17
전력,가스및수도	0.255	19	1.373	16	0.580	16	8.229	16	

	건설	0.267	16	1.377	14	0.543	18	12.857	9
	통신및방송	0.267	17	1.349	20	0.684	10	3.348	28
	금융및보험	0.229	22	1.365	18	0.641	12	9.868	1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178	25	1.260	25	0.869	1	5.871	23
	공공행정및국방	0.173	26	1.219	28	0.464	24	6.725	20
	교육및보건	0.156	28	1.956	1	0.766	9	9.319	15
	기타	0.667	1	1.299	24	0.850	3	6.174	21
관광사업	도소매	<b>0.279</b>	<b>12</b>	<b>1.367</b>	<b>17</b>	<b>0.580</b>	<b>17</b>	<b>4.482</b>	<b>27</b>
	음식점및숙박	<b>0.319</b>	<b>6</b>	<b>1.423</b>	<b>7</b>	<b>0.370</b>	<b>27</b>	<b>16.250</b>	<b>6</b>
	운수및보관	<b>0.278</b>	<b>13</b>	<b>1.393</b>	<b>11</b>	<b>0.445</b>	<b>25</b>	<b>13.514</b>	<b>8</b>
	사회및기타서비스	<b>0.294</b>	<b>10</b>	<b>1.354</b>	<b>19</b>	<b>0.827</b>	<b>5</b>	<b>7.051</b>	<b>19</b>
	평균	0.009		1.400		0.624		10.448	

자료: 한국은행-제주발전연구원(2008).  
「제주지역산업연관표」로부터 도출.

최성관(2006)에 의하면, 지역축제는 추진주체의 예산 지출을 통한 직접지출 경로와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재화와 서비스 지출 경로를 통해 지역의 소득과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2008 국제관악제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까지 정리된 보고서와 자료 중 최근의 자료인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2004년 보고서의 국제관악제 참여자의 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수는 최근의 구득 가능한 자료 중 2008년 국제관악제 참여자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자료의 구득년도가 차이나는 것은 2004년 이후 국제관악제 참가자들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료 구득년도의 차이로 인한 지출비용의 차이는 물가와 지출비용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자의적 추측보다는 조사된 자료를 그대로 직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활용하였다.

### 3.2 국제관악제의 사회적 영향 분석의 틀

지역 축제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에 이대희(2001)의 지역문화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정홍익 외(2008)가 분석한 문화관광상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합하여 분석 기준을 정리하였는데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지역 축제의 사회적 영향

구분	이대회(2001)	정홍익 외(2008)
사회 통합적 측면	주민참여 의식, 주민 화합, 주민들의 사회적 역량 확인	시민의 참여의식 제고
문화 발전적 측면	관련된 문화예술 발전 주민들의 문화 향수 욕구 충족 전통 문화의 발전 새로운 문화 자원의 개발 다른 지역 문화의 이해와 문화 전파	축제의 명확한 주제 선정 역사, 지역, 전통적 고유성 의미 내포 여부
정치 선전적 측면	지역의 국내외 선전 효과	지역 홍보 기회 매스컴의 집중 축제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협력체계 운영
환경적 측면	지역기반 시설 구축 생활환경 개선 환경 보호 의식 고양	
산업적 측면		산업의 차별성, 희소성 제고 후원기업 및 단체의 활성화 및 확대

자료: 이대회(2001) PP.362-391, 정홍익 외(2008) PP. 185-199 참조하여 구성

우선 사회통합적 측면, 문화 발전적 측면, 정치 선전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산업적 측면, 5부문을으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 사회통합적 측면, 문화 발전적 측면, 정치선전적 측면, 산업적 측면 네 부문을 기준으로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 지역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통합적 측면은 시민, 주민의 참여의식, 화합에 미친 영향, 문화발전적 측면은 축제의 명확한 주제 및 지역 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 정치선전적 측면은 지역의 선전 효과, 홍보 기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산업적 측면은 산업, 축제의 차별성 분석, 후원기업 및 단체의 활성화 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 4. 제주국제관악제의 영향 분석

##### 4.1 경제적 영향 분석

2008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한 임원, 연주자 등 참여자는 국외 참가 앙상블 및 관악단이 5개국 10개팀 170여명, 국내 참가 앙상블 및 관악단이 7개팀 230여명, 초청인사 및 협연자가 10개국 50명, 도립무용단 40명, 트롬본

및 플루트 캠프 참가자 2개팀 200명, 도내 참가팀은 11개팀 550여명 등 17개국 30개 팀 총 1,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지출액을 추정하면, 국제관악제 참가자의 1인당 총지출경비는 다음 표 5와 같이 교통비는 55,973원, 식음료비는 174,314원, 쇼핑비는 246,296원, 숙박비는 47,912원, 유희비 등은 286,423원으로 총 경비는 810,917원이고 국제관악제 참가자 전체 총지출액은 약 10억 5,419만원(교통비 7천 276만원, 식음료비 2억 2,661만원, 쇼핑비 3억 2,018만원, 숙박비 6천 229만원, 유희비 등 3억 7,23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 국제관악제 참가자의 총지출액 추정

구분	교통비	식·음료비	쇼핑비	숙박비	유희비 등	총비용	단위
공식 지출 경비	42,596	126,472	-	33,738	246,832	449,637	원/인
개인 지출 경비	13,377	47,842	246,296	14,174	39,591	361,280	원/인
합계	55,973	174,314	246,296	47,912	286,423	810,917	원/인
총지출액	72.76	226.61	320.18	62.29	372.35	1054.19	백만원

자료: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보고서(2004)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여한 참가자의 지출액이 지역경제에 파급시킨 직·간접효과를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총생산 파급액은 14억 5,431만원으로 평가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문화오락서비스업 5억 416만원, 숙박업 4억 3,769만원, 소매업 3억 2,247만원, 관광교통업 1억 135만원, 음식점업 8,864만원의 순으로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6억 3,291만원으로 평가되었는데, 문화오락서비스업 3억 793만원, 숙박업 1억 8,570만원, 소매업 8,385만원, 관광교통업 3,238만원, 음식점업 2,30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 고용파급자수는 제주국제관악제로 인한 관광산업에 10억원의 비용을 투입했을 때 생겨나는 일시적 일자리, 피고용자 수로 나타나는데, 총 고용파급 수는 9.7명으로 평가되었고, 소매업 3.68명, 문화오락서비스업 2.63명, 음식점업 1.01명, 관광교통업 0.98명 순으로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국제관악제 참가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총경제적 파급효과		
	생산파급액 (백만원)	부가가치 파급액 (백만원)	고용파급수 (명, 백만원)
숙박업	437.69	185.70	1.44(1435.05)
음식점업	88.64	23.05	1.01(1012.21)
소매업	322.47	83.85	3.68(3682.41)
관광교통업	101.35	32.38	0.98(983.28)
문화오락서비스	504.16	307.93	2.63(2625.44)
계	1454.31	632.91	9.7(9738.39)

#### 4.2 사회·문화적 영향 분석

사회통합적 측면을 보면 관악제 기간 동안 제주해변공연장,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아트홀, 서귀포천자연폭포야외공연장 등에서 59회의 관악단 순회연주회를 가졌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림공원, 약천사 산사음악회, 국립제주박물관, 대륜초등학교 등지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 국외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연주회가 있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곳곳에 초등학교, 박물관, 종교시설 등등에서 공연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접근의 편의가 있는 지역 공연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함께 관람하면서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측면에서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6월 한 달간 자원봉사를 모집하여 지역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시켰다.

문화발전적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을 확대시키고자 기존 2004년에 개최되었던 국제관악제가 제주 문예회관, 해변공연장, 한라아트홀, 천지연야외공연장 등 네 곳에서 2008년에는 그 장소를 초등학교, 박물관, 산사, 한림공원 등 특설무대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최강래에 작곡된 관악작품들을 발굴하고 세계에 보급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여 2008년에는 프랭크 티켈리를 초청하여 대표적 작품들을 조명하였고, 국제관악제에 참여한 국내외 음악인들을 위해 제주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주의 문화예술적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유명 음악축제인 국악 중심의 전주세계소리축제, 남원홍부제, 유명 음악가들의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통영현대음악제(작곡가 윤이상의 고향), 팔츠부르크 축제(작곡가 모차르트의 고향) 등과 차별화를 두면서, 제주지역에 6·25 전쟁 이후 관악이 활발히 이루어진 전통을 이어 관악제를 개최하고 그 맥을 이어가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선전적 측면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도내 방송사, 뉴스 및 문화예술 코너를 통한 지속적 홍보, 주요 일간지 홍보, 인터넷 방송국을 통한 실시간 중계, 인터넷 신문에 배너광고 게재, 주요간선도로 및 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 홍보영상물을 반복 송출하였으며, 인쇄 광고물을 제작하여 세계 주요 대학, 대통령 관악 연주단체, 각국 관악협회, 국내 자치단체, 대학, 중고교, 주요 문화시설 등에 배포하는 등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하였다.

이 외에도 축제 기간 내내 도내 주요 언론사의 보도가 이어졌으며, 특히 제주시장은 독일 로렐라이 금관앙상블팀을 공식적으로 만나 제주국제관악제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역홍보 등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제관악콩쿠르 심사위원장은 “제주국제관악제 기간 중 열리는 콩쿠르가 관악 7개 전 분야를 한꺼번에 열고 캠프형식으로 진행되며 심사위원 국적이 다양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제주국제관악제의 특성 등에 대하여 강점을 평가한 보도가 있었다(2008.8.21, 제주일보).

산업적 측면을 보면, 지역 은행, 악기 관련 기업, 국외 악기 제조사, 도내 언론사, 제주 관광협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도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민·관 후원이 있었다. 아직은 부족한 제주지역 메세나 운동이 국제관악제를 통해서도 실현되고 있고, 국제관악제라는 문화상품과 은행, 악기사 등 소규모의 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기업과 문화의 만남의 장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진행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5. 결론

지역축제가 지역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목적은 축제를 비롯한 문화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한 틀을 제시하여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08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관악제에 참여한 참가자의 제주지역 내 지출액이 지역경제에 파급시킨 직·간접효과를 분석하면 총 생산 파급액은 14억 5,431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문화오락서비스업 5억 416만원, 숙박업 4억 3,769만원, 소매업 3억 2,247만원, 관광교통업 1억 135만원, 음식점업 8,864만원의 순으로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6억 3,291만원으로 평가되었는데, 문화오락서비스업 3억 793만원, 숙박업 1억 8,570만원, 소매업 8,385

만원, 관광교통업 3,238만원, 음식점업 2,30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 고용과급자수는 제주국제관악제로 인한 관광산업에 10억 원의 비용을 투입했을 때 생겨나는 일시적 일자리, 피고용자 수로 나타나는데, 총 고용과급 수는 9.7명으로 평가되었고, 소매업 3.68명, 문화오락서비스업 2.63명, 음식점업 1.01명, 관광교통업 0.98명 순으로 과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사회통합적 측면, 정치선전적 측면, 문화발전적 측면, 산업적 측면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우선 사회통합적 측면을 보면 관악제 기간 동안 관악단 순회연주회, 지역 곳곳의 연주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2008년 6월 한달간 자원봉사를 모집하여 지역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시켰다. 문화발전적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박물관, 산사, 한림공원 등 특설무대를 지역 곳곳에 마련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켰고 세계적으로 최근래에 작곡된 관악작품들을 발굴하고 국제관악제에 참여한 국내외 음악인들을 위해 제주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주의 문화 예술적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내외 음악 축제와 차별화를 두어 625 전쟁 이후로 관악이 활발히 이루어진 전통을 이어 관악제를 개최하고 그 맥을 이어가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선전적 측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하였고, 축제 기간 내내 도내 주요 언론사의 보도가 이어졌으며, 특히 제주시장은 독일 로렐라이 금관양상블팀을 공식적으로 만나 제주국제관악제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지역홍보 등의 기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산업적 측면을 보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지역 은행, 악기 관련 기업, 국외 악기 제조사, 도내 언론사, 제주 관광협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도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민·관 후원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관악제와 관련하여 첫 단계의 연구에 불과하여 많은 부분에서 보완, 발전이 필요하다 하겠다. 먼저, 국제관악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을 직접 설문조사하여 관광객 수와 지출액을 추정하여 경제과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는 틀도 보다 계량화하거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진행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고숙희,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과급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 pp. 289-307, 2001.
- [2] 공성애·최근희, “지역문화행사(이천 도자기축제)의 지역 경제과급효과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8집, 제1호, pp. 125-145, 4월, 2005.
- [3] 김상호, “2000 광주비엔날레의 지역경제 과급효과”, 지역연구, 제20권, 제3호, pp. 1-16, 12월, 2004.
- [4] \_\_\_\_\_, “함평나비축제의 지역경제 과급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6권, 제3호, pp. 101-116, 9월, 2004.
- [5] 김한주·이충기,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제적 과급효과 분석”, 관광·레저연구, 제19권, 제4호, pp. 7-26, 11월, 2007.
- [6] 박호창,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12권, pp. 89-115, 2004.
- [7] 유명희, “박람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제1호, pp. 127-142, 3월, 2006.
- [8] 윤길준, “문화·예술 지원 기업 메세나 운동에 관한 고찰”, 문화연구, 제8호, 2003.
- [9] 윤상영, “2000년 월드컵축구대회개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 및 발전전략”, 한국레저스포츠학회지, 제5권, pp. 81-94, 12월, 2001.
- [10] 이상경·양승우, “TV 드라마 촬영장 방문객의 실제 관광지출액 추정과 경제과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8권, 제3호, pp. 167-188, 9월, 2006.
- [11] 이지식·윤정희, “지역축제의 경제적 과급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pp. 573-593, 3월, 2008.
- [12] 이충기,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과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제22권, 제3호, pp. 73-92, 1999.
- [13] 이충기·서태양·박종구, “2007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지역경제 과급효과 분석”, 관광연구, 제23권, 제1호, pp. 63-79, 5월, 2008.
- [14] 이충기·이진형·송학준,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철새관광축제의 지역경제 과급효과 분석”, 관광·레저연구, 제19권, 제2호, pp. 19-34, 5월, 2007.
- [15] 이희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동개발연구, 제11집, pp. 153-185, 2000.
- [16] 이희찬,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효과 추정방법 연구”, 관광학연구, 제25권 제2호, pp. 155-176, 2001.
- [17] 조우정, “마라톤대회 개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 분석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8호, pp. 201-214, 2006.
- [18] 최성관, “지역이벤트의 지역경제 과급효과”, 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pp. 19-40, 12월, 2006.

- [19] 김홍배, “도시 및 지역경제분석론”, 기문당, 4월, 2007.
- [20] 이대희, “문화산업론”, 대영문화사, 9월, 2001.
- [21] 정홍익·이종열·박광국·주효진,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8월, 2008.
- [22] 이강욱·최승목,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보고서, 12월, 2003.
- [23]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2008제주국제관악제 사업실적 보고서”, 내부자료, 2008.
- [24] 제주시·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예술·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보고서, 11월, 2004.
- [25] 한국은행 제주본부·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제주지역 경제구조 분석”, 2008년 제주경제 리서치 세미나 결과보고서, 7월, 2008.
- [26] 제주일보 홈페이지 <http://www.jejunews.com>
- [27]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 <http://www.jejuori.net>
- [28] 한국은행 제주본부 홈페이지 <http://bok.or.kr/jeju>
- [29] Fletcher, J. E.(1989), "Input-output Analysis and Tourism Impact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4).

이 은 정(Eun-Jeong Lee) [정회원]



- 2007년 2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08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지방재정, 문화행정

황 경 수(Kyung-Soo Hwang)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박사)
- 1998년 8월 ~ 2000년 8월 : 제주발전연구원
- 2004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통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

고 태 호(Tae-Ho Ko) [정회원]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경제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정책분석, 지역경제, 환경경제